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창작의 고통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.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전공으로, 취미로, 일로 만화를 그리면서 ‘누가 소재를 뭐라도 하나 정해서 던져 주었으면’ 하고 빌었던 기억을 담아 이 작품을 기획하였다. 대신 ‘뭐라도 하나’ 정도가 아닌, (거의)모든 것을 정해 주는 수준으로.

뭐든지 시작이 어렵다고들 한다. 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. <8컷 만화 KIT>은 내가 그릴 만화의 장르부터, 전반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, 각 컷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카드의 형식을 빌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다양한 종류의 카드와 함께 마치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처럼, 누구나 나만의 8컷 만화를 부담 없이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.